



소화기 생각 - 진료실에서의 녹음과 CCTV 설치에 대해서 -

의료 기구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로 수술한 사건을 발단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료와 시술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신뢰가 깨어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OO병원에서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평소에 진료를 담당하던 교수가 아니었고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전에 집도의가 변경된 것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고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수술 기록지와 동의서에 수술을 하지 않았던 담당 교수의 이름을 적었던 전공의와 간호사만 의무기록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법적제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건은 환자가 마취된 상태인 수술실에서 일부 의사나 간호사의 일탈 행위가 사회관계망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퍼지면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트리고 이것이 침소봉대가 되어서 결국에는 수술실에 CCTV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률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한 곳의 의료원에서는 자발적으로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하고 이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정 내시경이 이루어지는 내시경실이나 회복실에도 CCTV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최근에 진료실에서 자주 느끼는 불편한 것은 환자나 보호자분께서 진료실의 책상에 스마트폰을 놓고 진료의 내용을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 보호자는 환자분이 사정상 내원하지 못해서 대신 진료를 오셨고 진료 내용을 정확하게 환자분께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사전에 녹음을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분은 자녀분과 상의를 해야 하는데 같이 오지 못했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고 자녀분께서도 녹음을 해오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분들은 진료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니 사전에 양해는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스마트폰을 턱하니 진료실 책상 위에 내려놓거나 꼭 인터뷰하듯이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서 설명하는 의사의 앞쪽으로 내밀고 설명을 듣기 보다는 녹음에만 더 신경을 씁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진료실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대화의 당사자인 의사나 환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

이기도 합니다. 녹음의 경우에는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녹음하는 것과 혼자만 말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우리가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는 대부분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서로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사전의 양해나 동의가 없어도 합법입니다. 병원의 진료실에 '진료실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안내문구가 붙여져 있는 곳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녹음을 하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는 모두 합법이라고 알고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지식검색 등에서 의료사고와 관련된 검색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진료하면서 설명한 것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초기에 의료진이 설명한 것을 녹음한 것이 나중에 의료소송에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하며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을 진단 받거나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진단받거나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런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이런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에 대한 불신이 많아지는 시대에 의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의사를 믿지 못하고 녹음을 하는 환자나 보호자를 보면서 '이 환자나 보호자는 내가 잠재적으로 의료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료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의사를 믿지 않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떤 자세로 진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진료실에서 직면하게 된다면 당황하게 되고 설명하던 것도 주춤하면서 소극적으로 환자나 보호자를 대하고 꼭 설명하여야 할 것도 빠뜨리게 될 수가 있어서 환자나 의사나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녹음을 하려는 보호자나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하고 나만의 해결책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결책을 준비하는 첫 걸음은 녹음을 하려고 하는 환자나 보호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 *"의학적인 용어나 설명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녹음을 하시려는 것이죠? 녹음을 하시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설명이 자세하게 드리기가 어려우니 하시지 마시고 대신 제가 이렇게 설명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테니 잘 들으세요"* 하면서 미리 작성되어 있는 해당 질병이나 시술에 대한 표준화된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진료실에서 설명을 많이 하는 다빈도의 질병이나 시술에 대해서는 미리 표준화된 설명서를 작성해서 진료실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진단명의 환자라도 갖고 있는 동반질환이나 환자의 연령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공통되는 기본 내용은 그림과 문서로 작성한 것을 갖고 추가로 첨삭을 하면서 설명을 함으로써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어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고

녹음하려는 당위성도 사전에 없애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의료진이 시술에 대한 오더를 처방함과 동시에 환자나 보호자의 스마트폰에 해당 시술에 대한 설명과 삽화 및 동영상도 링크로 전송하여서 시술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주어서 나중에 환자에게서 동의서를 받을 때 편리한 프로그램도 이미 운용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달하는 정보화 시대에 의료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또한 필요한 프로그램은 개발해서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윤리적인 일탈을 보이는 의료인은 극소수이고, 다른 직업군에서도 윤리적인 일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의료계에 비난이 많이 쏟아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무한한 신뢰를 보냈던 의사들에게서 그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과도 같은 행위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어떤 직업보다도 고도의 윤리성이 필요한 의사라는 직업이 단지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으로 선호되면서 오로지 학업성적으로만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의료 지식에 대한 시험으로만 의사의 면허를 주고 한번 받은 의사 면허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이나 박탈할 수 없다는 것도 이유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치료에 대한 결과만으로 의사를 평가하는 현 사회의 풍조에서 의학적 지식보다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에 뒤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료계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서 질환의 발병기전이 새롭게 밝혀지고,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고, 어떤 질병은 완치까지 이루어지고, 새로운 수술법등이 의료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지식의 습득은 의사로서는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학적 지식의 습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소양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의사들이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하고 의사로서의 초심을 지키는 진료실에서 환자들도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